기껏 죽이려고 고르고 고르고 또 고른다

(역대상 3:1~24)

1.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2.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요
3. 다섯째는 스바댜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4.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칠 년 육 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다스렸으며
5.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6.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7.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8.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9.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껏 죽이려고 고르고 고르고 또 고른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껏 죽이려고 고르고 고르고 또 고른다'

금년 7월에 방글라데시에서 인질들 중에 20명이 살해당하는 참혹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인 2명과 18명의 외국인이 모두 잔혹하게 고문당한 뒤에 살해되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 9명, 일본 사람이 7명, 미국과 인도 사람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살해할 인질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슬람 경전 쿠란을 외우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탈리아인이나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나 인도 사람이 쿠란을 외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쿠란을 암송하지 못하면 신체를 훼손시키고 고문하다 죽였는데 이처럼 참혹한 테러는 어떤 식으로든지 IS와도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인질극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의지의 단호함을

증명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질들을 골라서 살해합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인질들 모두가 수긍할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인질들을 골라내어 공개적으로 죽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골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면 신데렐라 유형의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테러범들이 협상하기 위해 죽일 인질을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인하는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껏 골라내신 이유는 죽이시려 함인데, 그것도 직접 죽이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죽으라고 요구하시고 강요하십니다.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역대기서에 처음 나오는 족보 부분을 대부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자 에스라의 깊은 신학적 통찰을 살펴보다면 아담에서부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50년 이상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찰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다윗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전체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좁혀졌습니다. 2장에서는 야곱의 열두 아들로 시작된 열두 지파가 소개되면서 그 선민의 족보가 다시 유다 지파로 좁혀졌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보편적 역사에서 아브라함으로 좁혀지고 열두 지파로 시작되는 선민의 족보에서 유다 지파로 좁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 안의 여러 가문들 중에서 다시 다윗의 가문으로 좁혀지는데 계속해서 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선택들 외에도 많은 작은 선택들은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열두 지파가 선택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여덟 아들 중에서 이삭이 선택되었고, 그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아담, 아브라함, 다윗이라는 굵직굵직한 큰 획을 긋는 세 번의 선택을 기준으로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칠년 육 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하여 아들 여섯 명을 낳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아들 열세 명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러서 얻은 아내인 밧세바가 나은 네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나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문을 이루고, 넷째 아들 솔로몬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가문을 이루는데 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치 죄가 깊을수록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상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의

424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다윗의 자손인 20명의 왕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서 이어지게 될 다윗의 자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기간을 생각하면 약 500~600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또 다른 별칭이었고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자손의 계보의 마지막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이르기까지의 다윗 자손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동생 다말을 강제성추행하고 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다말과 동복 오라비 압살롬은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피신 이후에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성으로 쳐들어가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범합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들 중에는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비교적(비교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려는 계획을 확정짓게 만드는 므낫세와 같이 성전의 의미를 깡그리 제거하는 악행을 저지른 자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면 다윗 자손 내에서 악이 선에 대해 승리하게 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르는 선택된 다윗 가문의 족보 내에서 선과 악의 싸움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알 수 있듯이 악이 선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악이 지배하고 승리하는 다윗 자손의 혈통이 예수님께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22:41~46, 막12:35~37, 눅20:41~4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110:1절을 예로 드시며 "다윗이 메시야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고 물으셨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상 3장을 잘 이해했다면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천년 동안의 다윗의 자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윗의 아들딸이든 왕위를 물려받았든 물려받지 못했든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 안에서 포개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개짐이 이어져 나가다가 마지막 예수님께로 가서 끝이 나는데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고르시고 고르시고 고른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과 포개져서 십자

가에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만 고르시고 열두 지파 내에서 유다 지파를 고르시고 유다 지파 내에서 다윗의 가문을 고르신 것처럼 트리플 선택에 해당되는 선민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천 년 전의 다윗 시대처럼 물리적이고 정치적 차원에서의 전성기가 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신 이유는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천 년 뒤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수천수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다윗의 자손들의 이름하에 모두 예수님에게 포개어집니다. 다 포개어진 자의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고르시고 고르신 선민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활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윗이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한 죽음을 죽지 못했던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의 의미는 다윗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 됨의 자각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선민은 죽어야 함을 자각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에게 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확정될 정도로 죄악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선함을 지배하는 자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인데 이것이 바로 나인 것을 자각하는 것이므로 그 다윗의 마지막 자손이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포개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생활에서 십자가에 포개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면 십자가에 포개지는 것이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신 자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이 세상의 부흥을 꿈꾸며 메시야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 사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믿음의 행태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고 고르신 진짜 선민인 사람들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포개어집니다. 이것이 안 되거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마음에서 믿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개선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의미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최선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르시고 고르시고 또 고르신 참 선민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자손이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치 테러범들이 인질들을 죽이려고 고르는 모습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고르시고 고르시고 고르신 이들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해 꿈꾸었던 물리적 정치적 부흥은 세상에 대해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을 중단하고 끝내고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웃을 일과 기뻐할 일과 만족할 일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동조하고 긍정하고 수긍해야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자들에게 십자가를 들이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골라지고 골라지고 골라진 다윗의 자손이고 참 선민이라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자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한 순간이라도 사라진다면 악이 내 마음안의 모든 선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생활화되지 않는 한 나의 삶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 진짜 다윗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말하면서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자손들을 이어지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게 하시려는 뜻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사이에 끼어 있는 선민으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세상의 물리적 정치적 부흥을 꿈꿀 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골라짐을 받은 진짜 다윗의 자손들은, 어중간하게 선택받은 선민들 틈에서 세상에 대해 죽을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족보는 보면 볼수록 깊고 깊은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선택 받았다면 십자가를 생활화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나의 생의 가장 기쁘고 즐겁고 고귀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